전주시, 인본 중심 택지개발사업 추진

에코시티 · 만성지구 · 효천지구 등 친환경 생태도시 건설

전주시가 에코시티와 만성지구, 효천지구 등 각종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시민과 함께 만들고 가치를 공유하는 살기 좋은 생태도시로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시는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과 전주권 광역도시 중추기능 강화를 위한 노력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우선, 시는 송천동과 호성동, 전미동 일원에서 추진되는 에코시티 조성사업의 경우, 단순한 신도시 개발이 아닌 자연친화적 여건을 최대한 활용한 친환경 생태도시로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에코시티는 현재 체비지 매각과 부지공사가 순조롭게 이뤄짐에 따라 오는 3월에는 예정대로 1단계 공사가 준공되고, 오는 5월까지는 환지처분을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이후 오는 2018년 항공대대가 도도동으로 이전하면 곧바로 2단계 사업에 착수, 오는 2020년까지 전체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에코시티 조성공사가 완료되면 '에코'라는 이름에 걸맞은 친환경생태도시가 웅장한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는 전북혁신도시와 연계해 신도시 개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만성지구 도시개발사업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시는 법조단지가 조성될 만성지구에 대해서는 지난 연말 1단계 준공을 마치고, 현재 공원과 녹지 등 친환경 생태도시 면모를 갖추기 위해 막바지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올 연말까지 기존 혁신도시 내 근린공원과 수변공원, 기지재 및 황방산으로 이어지는 생태축을 조성하고, 기지재와 근린공원을 연결하는 보도육교 1개소, 근린공원과 근린공원을 연결하는 생태통로 2개소를 미관과 주변 산책로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주민들의 선호가 높은 남서부권의 주택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도 전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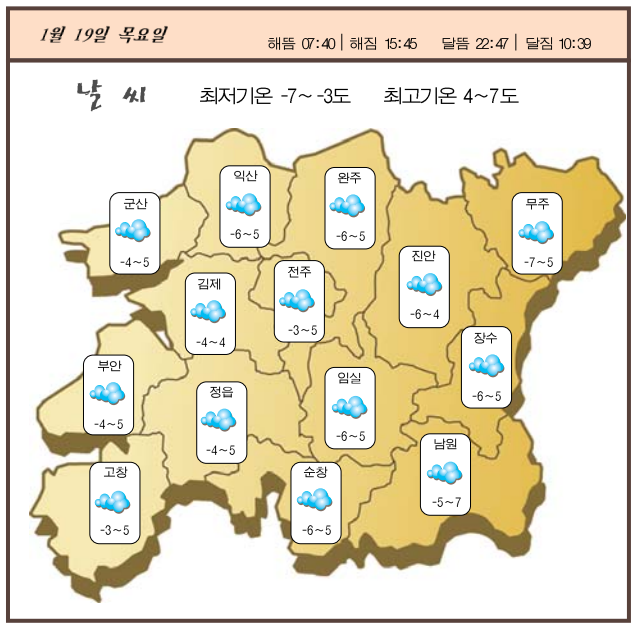
효천지구는 지난 2014년 말 공사에 착공해 현재 56% 이상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올 연말 준공될 예정이다.

시는 효전지구 내 위치한 백로서식지의 자연환경을 보존해 근린공원으로 조성하고, 근린공원과 삼천 산책로를 연결하는 보행통로도 설치할 계획이다. 또, 효천지구 주변 중복천과 신설되는 저류는 생태환경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올해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 정책과 결합해 신도시개발 시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분리형으로 개설,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자전거를 이용하고 보행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다.

양연수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택지개발이 단순한 신도시 개발이 아닌 사람이 우선이고 사람이 제일인 사람중심의 도시건설에 앞장서겠다"며 "2017년을 도시 체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해로 삼고, 시민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가치를 실현하고 가장 전주다운 도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김승환 전북교육감 명절 맞아 사회복지시설 방문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설 명절을 맞아 18일 오후 완주 국제재활원과 진안 흰마실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김 교육감은 24일에는 김제 애린양로원을 방문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민족 고유의 명절 설을 맞이아 우리 사회의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자 12일부터 26일까지 사회복지시설 30곳을 방문하여 1천5백여만원 상당의 쌀과 라면, 화장지 등 생필품을 전달한다. 도교육청은 매년 설과 추석 명절을 맞아 사회복지시설을 방문, 생필품을 전달하고 나눔의 미덕을 실천하고 있다.

/정해은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온누리 상품권 이동판매행사가 18일 전북 전주시청 로비에서 열린 가운데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명지 전주시의회의장이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하고 있다.

전북소방본부, 지난해 평균 13분마다 구조활동

전북 소방관들은 지난해 평균 13분마다 구조활동을 펼치며 바쁜 하루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구조활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4만 219회를 출동했고, 3만 4,192건의 구조활동을 펼쳐 4,937명을 구조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증가하는 구조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유형·지역별 사고분석 결과를 맞춤형 안전대책으로 활용하여 186만 전북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민근 기자

전주시 온누리상품권 이동판매 행사

전주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온누리상품권 구입과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등을 통해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시는 18일 시청 로비에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이동판매소를 설치하고 온누리상품권 판매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시 산하 직원 및 자생단체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총 474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했다.

시는 이날 온누리상품권 구매행사에 이어 오는 23일과 24일 전주시 전 직원 및 자생단체가 참여하는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도 대대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전주시 전통시장 상인들도 시장을 찾는 고객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며 설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고 나섰다.

남부시장 글로벌명품시장 사업단은 오는 19일부터 26일까지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앞에서 떡메치기, 윷놀이 등 전통놀이 체험 행사를 진행하며, 모래내시장과 신중앙시장에서는 물건을 구입하는 고객들에게 룰렛 이벤트를 통해 경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남부시장 및 풍남문상점가에서는 시장 내 상품으로 구성된 명절 선물세트를 특가로 판매하는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한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은 전북은행과 농협, 우체국, 신협등 시중은행에서 판매되며, 명절을 맞아 오는 2월 28일까지는 개인별 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5%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김영재 기자

시, 원도심 중학교 이전 전주시민 공론조사 실시

전주교육지원청과 전주교육발전 민관협력위원회(위원장 오평근)는 21일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원도심 중학교 신축이전에 관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전주시민 공론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주교육지원청은 지난 16일 수평공감 토론회가 끝난 직후 제2차 민관협력위원회를 개최하여 공론조사 문항 및 방법 등을 결정했다.

이번 공론조사에서는 이전대상학교 학부모 및 교직원 1백여명, 전주시민 9백여명에게 곤지중과 덕일중 신축이전에 대한 찬반여부를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조사할 계획이다.

전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공론조사 결과에 따라 원도심 중학교 신축이전 추진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만큼 공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전주교육지원청은 인구이동에 따라 전주시 중학교를 적정하게 배치하고 원도심 중학교의 장기적인 발전 방안으로 전교생 1백50명 미만인 곤지중과 덕일중을 에코시티 및 만성지구로 신축이전을 제안했다.

교육 불균형 심화, 원도심 지역 공동화 및 경기참체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도 있어 이번 공론조사 결과에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정해은 기자

도교육청, 유아교육 내실화 추진

전북도교육청은 올해 유아교육 내실화를 위해 △놀이와 체험 중심 교육활동 △숲과 연계한 교육활동 △도란도란 책놀이터 운영 등 3가지 중 1개 사업을 유치원들이 선택해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국공립 유치원과 유아 정원 20명 이상인 사립 유치원에 대해 교원과 학부모 대표 5~11인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정착시키고 교무실무사 40명을 배치해 교원 업무 경감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아학비의 경우 교육과정비 공립 월 6만원, 사립 월 22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방과후 과정비는 공립 월 5만원, 사립 월 7만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3월 전주 아름유치원(12학급), 전주 하가초 병설유치원, 익산 가온초 병설유치원이 새롭게 개교한다.

/정해은 기자